

어린이책도 입체화 고급화 바람

수준높은 그림과 다양한 제작으로 읽는 재미 더해

어린이들이 최초로 접하는 인쇄매체라는 점에서 그 어떤 분야의 책보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림책이 변하고 있다. 근년들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어린이 그림책의 변화는 책의 소재나 형태, 기능 등 포괄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그림책의 변화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수준이 높아진 그림이다. 종래의 어린이 책에 수록된 그림들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나 삽화가들이 그린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그림이 대체로 디자인적이고 정적인 것이었던 데 비해, 최근 일러스트레이션이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정착할만큼 발전하면서 일러스트를 활용한 어린이책의 그림은 예쁘기만 한 '동심천사주의적' 그림(어른 중심의 그림)에서 탈피, 어린이 중심의 동적이고 다양한 표현을 아우른 그림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 외국것을 모방하거나 원용하던 데서 벗어나 우리의 일러스트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보림출판사가 지난해 내놓은 '작가가 쓰고 그린 그림책' 시리즈는 우리나라 그림책의 일

최근 어린이 그림책의 변화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작가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어린이 중심'의 완성도 높은 그림들이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또 직접 손으로 만지고 펼치고 붙이면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책의 제작기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어린이 그림책의 내용이 고급화하면서 다양한 기획 시리즈들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러스트레이션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레와 크레용》(박순보) 《색동구리구리》(유애로) 《꼬니는 내 친구》(정대영) 등 전 25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그림과 글을 함

께 아우르는 이른바 '그림작가'들의 작품이라는 것이 특색. 작가들의 개성과 색깔이 살아있는 독창적이고 생동감있는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작은 새의 눈물》(나애경, 민음사) 《이사가는 날》(김세은, 비룡소)은 각각 제 2, 3회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한 책으로 완성도 높은 그림이 돋보이는 책이다.

어린이 그림책의 소재가 위인들의 이야기나 세계명작 등 '고리타분'한 것에 머무른 것은 옛말이다. 과학·역사·우주 등 다양한 영역으로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것도 요즈음의 추세다.

《공룡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김학훈 글, 전병준 외 그림, 예림당) 《티라노 사우루스》(윌리엄 런드세이, 김효식 옮김, 지경사) 등 공룡이야기, '알쏭쫘 달쏭쫘 과학박사 시리즈'(전 8권, 대교) 등 우주, 자연과학, 동·식물이 소재가 된 책이 있는가 하면 《입체투시로 보는 우리의 몸》(세종문고) 등 인체탐구를 소재로 한 책도 있다. 이밖에 국내 작가들의 창작동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바보이야기 시리즈'(전 8권, 이동진, 계몽사)는 판화그림이 눈길을 끈다.

최근 1차로 8권이 간행된 '술거나라' 시리즈(보림)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그림책으로 주목된다. 《한지돌이》(이종철 글, 이춘길 그림) 《우리 로켓》(채연석, 이창우) 《숨쉬는 향아리》(정병탁, 박완숙) 등 소재를 엄선, 철저한 자료수집과 조사와 고증을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쓰고 그려

우리 전통문화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우리나라 그림책의 수준을 보여주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평면개념 뛰어넘은 입체 책

어린이책을 살피는 재미 중의 하나는 근년 들어 출간되는 어린이책들의 제작기법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매직페이퍼 시리즈'(전 4권, 대표)는 붓에 물을 묻혀 그림을 그려놓으면 물이 마르는 순간 그림이 사라지는 요술종이를 붙여놓아 흥미를 더한 책. 《온 가족이 함께 보는 푸른 벨 이야기》(C.S.C) 《입체로 보는 3차원 별자리》(진선)는 책 속에 입체안경을 함께 넣어 독자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별들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더한 책이다.

페이지의 크기를 크고 작게 만들어 겹치고 중복되는 가운데 화면이 마치 퀴즈를 풀어가듯 진행되게 하거나, 페이지 위를 잘라서 그 사이로 나타나는 형태와 색상의 변화가 주요 소재로 작용하게 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제작기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아기별 플레이북'(여명) 시리즈의 책들은 책의 일부분을 잘라내어 그곳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게 한 책. '아기토끼 토토' 시리즈(웅진출판)에서도 페이지의 일부분을 겹치게 제작, 그것을 펼치며 읽는 재미를 더하도록 하고 있다. 어깨동무에서 펴낸 '어항북' 시리즈는 책 가운데 구멍을 뚫어 출렁이는 어항을, '나무이야기'에서는 가운데 나무를 넣어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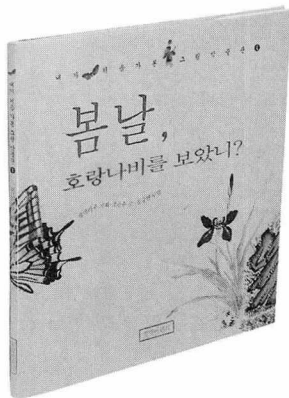
화제의 책

옛사람의 생각과 그림의 재발견

'내가 처음 가본 그림박물관' 시리즈

서양화가인 밀레나 고흐 피카소의 그림은 익숙한 반면 우리나라의 김홍도나 정선 등의 그림세계는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시리즈는 풍속화가였던 김홍도가 그린 <나비들>이나 진경산수화로 유명한 정선의 <들판의 방아깨비> 같은 옛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서 사물과 동물의 세계에 눈뜨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독특한 기획물이다.

첫권으로 나온 《봄날, 호랑나비를 보았니?》에서는 꽃과 벌레를 중심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 나비그림의 일인자였던 남계우의 온갖 나비들과 매화를 즐겨 그렸던 조희룡의 매화그림, 신사임당의 맨드라미와 쇠똥구리, 심사정의 잠자리 등 우리나라 화가들의 고풍스런 그림들이 색다른 맛을 전달한다.



그림에 얽힌 설화나 전설과 함께 그림의 의미를 설명, 박물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살아있는 듯한 사실적인 옛 그림들이 현대적이라 우리 문화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도 이 시리즈의 또다른 특징이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새, 동물, 얼굴, 십이지신, 도깨비 등 총 10권을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길벗/A4변형/각 34면/각 7000원

어린이의 상상력 만큼 자유로운 장르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콘테스트’에 입선한 이은경씨

장난감처럼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디즈니 소리나는 이야기 책’ 시리즈(세종문고)에서는 디즈니 동화와 함께 각 동화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음악을 곁들여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도록 장치를 달았다. 《입체투시로 보는 우리의 몸》(세종문고)은 인체의 중요기관에 아세테이트 비닐을 붙여 마치 몸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신비감을 더한 책.

읽는 책으로서보다는 장난감의 개념으로 아이들과 책을 보다 친숙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제작된 이러한 입체 책들은(토이북이라 통칭되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한두권씩 선보이기 시작했고,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93년 말부터. 시장개방 여파와 출판인들이 해외출판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책이나 아이টে이 수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읽고 보는 책이 아니라 만지고 듣고 놀이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입체책은 어린이 독자들에게는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작여건의 미비와 원가문제 등이 요인이 되어 아직 국내에서 자체 개발되기도는 외국의 아이টে이를 따오거나 책을 그대로 수입하는 등 외국의 기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우수한 책도 많이 선보여

상술에 의해 때로는 지나치게 조악하거나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책이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어린이책을 수입하는 문제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게 출판인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외국의 좋은 어린이책을 수입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좋은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한편, 외국책과의 교류·경쟁을 통해 우리책의 대내외적인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 독자들의 눈을 높여주기 위해 충분한 외국의 질 높은 책들이 속속 번역, 출판되고 있는 것은 반갑고도 값지게 수용해야 할 어린이책 출판의 또 하나의 경향이다.

프랑스 갈리마르사의 역작으로 손꼽히는 어린이 백과 《LES RACINES DU SAVOIR》가 ‘지식의 뿌리’(마루벌)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혁신적인 그래픽과 특수효과로 가득 찬 이 시리즈에서 어린이들은 원시인의 동굴벽화도

만져볼 수 있고 책 속의 책을 열어 볼 수도 있고 악기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는 책보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재미와 정보, 지혜를 제공해줄 이 책은 단순한 기교가 아닌 종이공학 기술이 어떻게 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비단 어린이에게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훌륭한 참고도서가 될 《비주얼 박물관》(웅진미디어)은 영국 돌링 킨더슬리사의 독창적 제작 기법이 유감없이 발휘된 책이다. 마치 독자가 눈 앞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생생한 실물크기의 근접촬영 사진이 돋보이는 ‘렉시그래픽 디자인’이 그것인데, 한 페이지에서 글과 사진이 일 대 일로 대응되면서 마치 영상매체가 제공하는 듯한 강한 이미지 효과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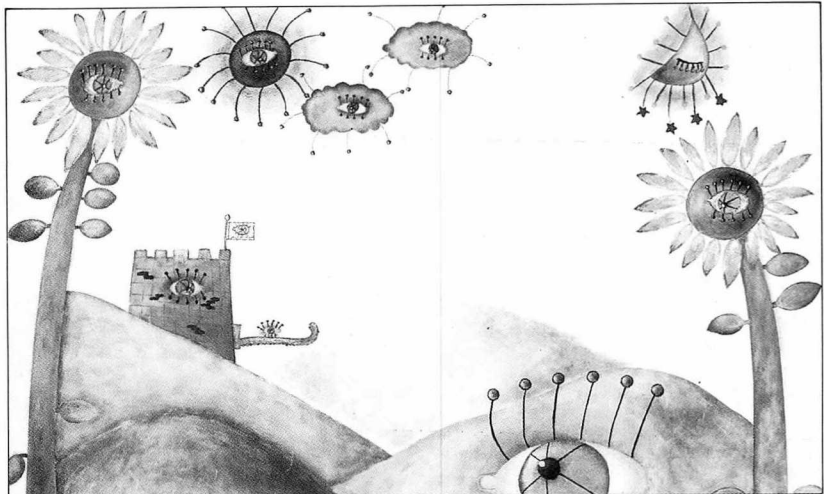
《크로스 섹션》(진선)은 성, 탄광, 증기기관차, 우주왕복선 등 18가지의 유명 건축물과 교통기관을 해부하듯 가로세로로 잘라서 그 내부의 정밀함과 구조 등을 보여주는 책이다. 사실적인 그림과 자세한 설명이 돋보인다.

한길사에서 펴낸 ‘윈도우’ 시리즈는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원리탐구’를 주제로 한 영국 돌링 킨더슬리사의 ‘WINDOWS ON THE WORLD’의 한국어판. 선사시대부터 첨단과학에 이르기까지 자주 접하면서도 정확한 실상과 과학적 원리를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실물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정확한 일러스트는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기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세계의 불가사의》등 12권이 출간되었다.

이렇듯 최근 어린이책들에 보이는 변화는 세계적인 경향이며, 그것은 매체의 홍수속에서 아이들이 책을 이끄기 위한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우리의 그림책이 이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제도 적지 않다.

이원복 교수(덕성여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기획과 출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린이 그림책 전문작가 배출을 위한 교육과 양산되는 책들을 비판적으로 걸러내고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박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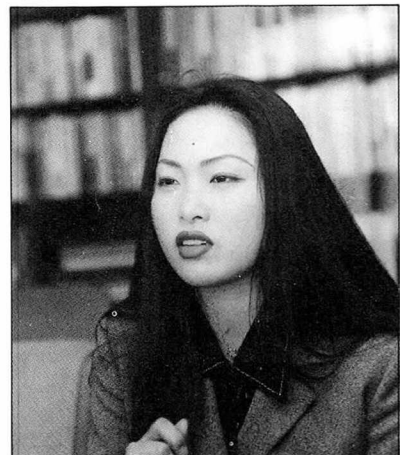
《눈의 나라》중 전체 그림.

이은경씨.

계몽사가 주최하는 제2회 ‘서울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콘테스트’에 《눈의 나라》로 입선한 이은경씨(23)에게 일러스트가 “나만의 뚜렷한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최상의 장르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림책 일러스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그런 만큼 일과해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당찬 야심도 숨김없다.

“광고나 다양한 매체에서 일러스트는 점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어린이책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어린이의 상상력 만큼이나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입선작인 《눈의 나라》는 눈이 크다고 놀림받던 한쪽 눈이 꽃의 나라와 물고기나라로 가서도 따돌림당하다 결국 자기 ‘눈의 짝’으로 되돌아와서 행복하게 만나는 줄거리. 낙서를 좋아해 손바닥에 ‘눈’의



캐릭터를 그리다가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완성하게 됐다.

올해 인덕전문대 일러스트레이션과를 졸업한 이은경씨의 입상경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출판미술 신인대상전’ 동화부문에서 환경에 관한 캐릭터로 특별상을 받았고, 역시 지난해 ‘디자인대전 간행물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에 입선한 경력이 있다.

“음악에서 클래식과 팝의 관계처럼 전통 회화에선 일러스트를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개성적인 이미지로 온갖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장르”임을 강조하는 이은경씨의 독특한 그림책 일러스트의 세계를 기대해본다.

—김지원 기자

‘서울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중국 丁小菁(딩 차오징)의 《나비야기씨》. 대상을 비롯해 가작을 받은 문경진의 《주인을 구한 개》 등 입상작품은 5월9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계몽문화센터 영플라자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531-5608)

